

세계정당연대의 원상복합인 공동프로로 상선급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동원명IC 경수순 코르세 개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선체 실시
- 예약 : www.hpdyneasy.co.kr 0801 320-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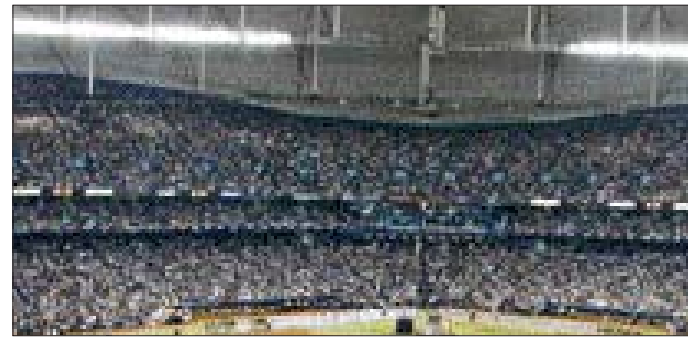
# '가을 축제' 무르익는 韓·日·美 프로야구



두산 VS 삼성 플레이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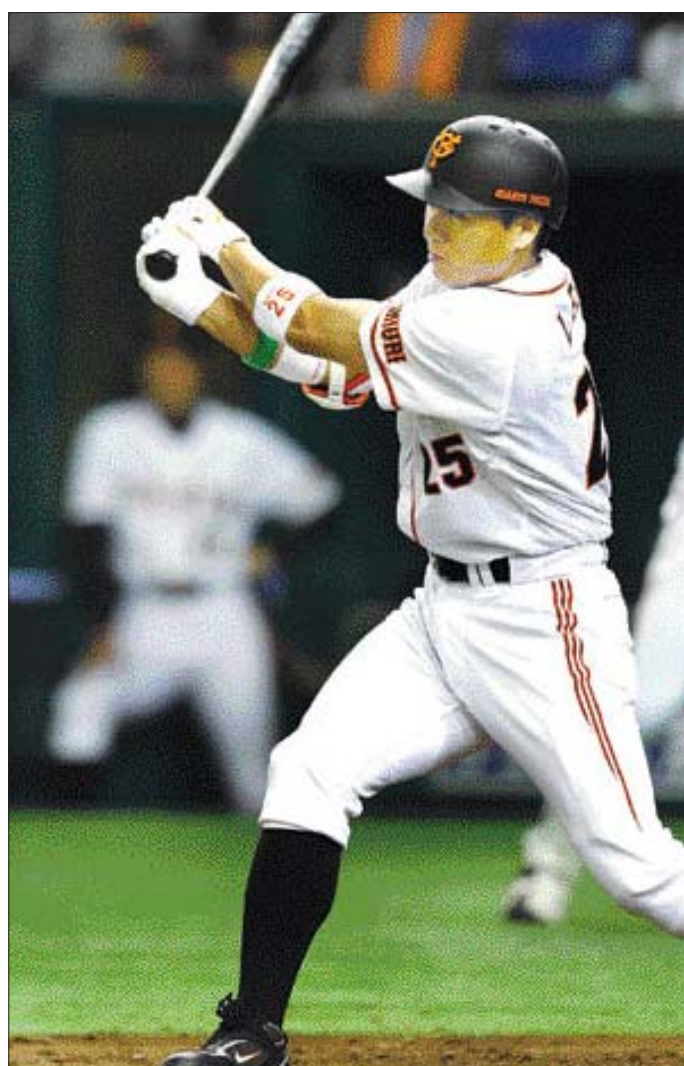
요미우리 VS 주니치 센트럴 챔피언



필라델피아 VS 탬파베이 월드시리즈



23일 오후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6차전 두산 대 삼성 경기에서 두산 공격 1회말 1사 만루 고영민의 희생플라이 때 오재원이 홈에서 세이프되고 있다.



23일 저녁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클라이맥스시리즈 제2스태이지 요미우리 자이언츠-주니치 드래곤스의 2차전 경기. 요미우리 이승엽이 1회말 우전 안타를 치고 있다.



지난 23일(한국시간) 미국 세인트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필라델피아가 탬파베이를 3-2로 누른 뒤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물고 물리는 명승부

◇ 한국시리즈 = '과물' 김광현에게 SK 와이번스의 2연패를 묻는다. 지난해 SK 와이번스는 두산 베어스와와 한국시리즈에서 2연패로 위기에 몰렸다가 4연승의 극적인 반전으로 팀 창단 이후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V1'의 숫자를 '2'로 늘리겠다는 SK는 선발진의 부재와 부진으로 고민했던 삼성, 두산과 달리 김광현-채병용-송은범등이 마운드에 버티고 있어 높은 마운드를 자랑한다. 박재홍을 필두로 한 김재현·최정 등 거포가 타선을 받치고 있고, 정근우와 박재상은 빠른 발로 기동성을 더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어느 팀보다 우세하다. 게다가 정규리그에서 무려 83승을 챙기며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만큼 전력손실도 없었다. 하지만 그라운드외의 공백이 오히려 SK를 고민에 빠트렸다. 지난 5일 정규리그를 끝낸 SK는 8일부터 문학구장에서 한국시리즈를 위한 담금질을 시작했다.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 히어로즈와의 평가전을 계획했지만 이광환 히어로즈 감독이 갑자기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SK는 2군 선수들을 경기 파트너로 세워 흥행전을 치러왔다. 하지만 SK에게 한 달 가량의 경기 공백이 컸다. 공·수를 책임질 젊은 피 김광현과 최정이 난조를 보이는 등 '실전 감각'이 SK 2연패의 변수로 등장했다.

## '兩李'의 전쟁 큰 관심

◇ 재팬시리즈 = 일본은 지금 '양이'(兩李)의 전쟁중. 가장 늦게 최후의 승자를 겨루는 일본은 내달 2일부터 재팬시리즈에 돌입한다. 니혼햄 파이더스를 누르고 퍼시픽 리그 대표로 나서게 된 세이부 라이온즈는 '양이(兩李)'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상대팀 전력을 가늠하고 있다. 센트럴리그에 배정된 재팬시리즈 티켓을 위해 이승엽의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이병규의 주니치 드래곤즈가 제2 스테이지(CS)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22일 벌어진 1차전에서 이병규는 첫 타석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4-3팀 승리를 견인하며 먼저 웃었지만 정규리그 우승팀의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이승엽도 만만치 않다. 일본 프로야구의 제2 스테이지는 6전4선승제로 진행된다. 이때 정규리그 우승팀에게는 어드밴티지로 1승이 주어지는 데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그 1승을 챙겼다. 두 한국인 타자의 방망이 끝에 양팀의 승부가 갈리게 된 이번 승부는 일본은 물론 한국 야구팬들에게도 큰 관심거리다.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호타준족'의 이병규와 '월드 거포' 이승엽 외 또 다른 반가운 얼굴도 만날 수 있다. KIA 타이거즈에서 활동했던 그레이싱어는 1차전에서 이병규에 솔로 홈런을 얻어맞기는 했지만 요미우리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다.

## '꿀찌들대결' 흥행 예고

◇ 월드시리즈 = '꿀찌 돌풍', 글장 승부 '흥행 돌풍'을 일으킨다. 가장 먼저 우승을 향한 최종 시리즈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야가 1승을 신고했다. 23일 세인트피터스버그 프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체이스 어블리의 투런포를 앞세워 3-2로 탬파베이 레이스를 제압했다. 이번 시리즈는 '꿀찌'들의 맞대결로 불린다. 탬파베이는 1998년 창단 이후 9차례나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꿀찌를 했다. 연봉 총액이 4천400만 달러에 불과한 '만년 꿀찌' 탬파베이는 올 시즌 연봉 총액 2억달러가 넘는 '호화군단' 뉴욕 양키즈를 누르고 지구 1위를 차지했다. 팬피리어드에서는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명문 보스턴 레드삭스를 제압하고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합류했다. 15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를 다시 밟은 필라델피아도 명문팀과 거리가 멀다. 1882년 창당한 필라델피아는 126년이라는 팀 역사를 통틀어 1980년 단 한 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박찬호가 뛰고 있는 인기팀 LA 다저스를 꺾고 월드시리즈 티켓을 거머쥐었다. 스타구단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월드시리즈 열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지만 두 팀은 월드시리즈 글장 승부를 예고하며 흥행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봉산중 우승

전국 중별여자소프트볼

광주봉산중학교가 제20회 전국 중별여자소프트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봉산중은 23일 충남 계룡대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경기 현화여중을 10-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봉산중은 1차전에서 서울 신정여중에 9-0, 2차전서 충북 사대부중에 10-0으로 승리하는 등 1~3차전을 모두 풀드게임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봉산중은 올 3월에 선수모집을 한 신생팀으로 팀이 꾸러진 후 첫 출전대회에서 모두 풀드게임승을 거두고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봉산중은 우수야(3년)가 최우수 선수상, 홍유진(3년)이 최우수 투수상, 정수주(2년)가 타격상, 정혜인(2년)이 타점상, 원혜송(3년)이 도루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상도 휩쓸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팬들 격려에 감사"

KIA 호랑이 가족 한마당

내달 1일 무등경기장서

KIA 타이거즈 선수단과 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08 호랑이 가족 한마당'이 다음달 1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올 시즌 응원과 격려를 보내 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9 신인 등 KIA 선수단 전원이 참가해 팬들과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행사를 갖는다.

행사에 참가하는 팬들에게는 기념우산과 타월을 선물하고, 백화점 상품권, 청소기, 안마기, 콘도 이용권 등의 경품도 마련된다.

참가를 원하는 팬은 29일까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선착순 300명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 전시되는 선수 액자는 팬들에게 판매되며 수익금 전액은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새 태릉선수촌장에 김인건씨 내정

대한체육회가 공식적인 태릉선수촌 신임 촌장으로 김인건(64) 전 촌장을 내정했다.

체육회는 27일 오후 2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베이징올림픽 직후 사임한 이예리사 전 촌장의 후임으로 김인건씨를 선수촌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인건 촌장 내정자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 차례 선수촌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KBL 경기본부장을 맡다 지난 8월 물러났다.

체육회는 이예리사 전 촌장이 물러난 뒤 다각도로 후임 촌장을 모색했으나 임기가 내년 2월까지도 짧은 탓에 인선에 애로를 겪었다. /연합뉴스

## 핸드볼협회장에 최태원 회장 유력

최태원(48) SK그룹 회장이 새로운 핸드볼 수장이 될 전망이다.

대한핸드볼협회는 28일 오후 4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대의원총회 안건이 '신임회장 선출'인 만큼 현 조일현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새로운 회장 후보가 추천되면 추대 또는 투표를 통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다.

새 회장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력하다. SK의 한 고위 임원은 23일 "(최태원 회장이 핸드볼 협회장을 맡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핸드볼 국가대표팀 새 사령탑

남자 최태섭씨·여자 이재영씨

남녀 핸드볼 대표팀 새 사령탑에 최태섭(46) 성균관대 감독과 이재영(52) 대구시청 감독이 각각 선임됐다.

대한핸드볼협회는 23일 오후 강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8명씩으로 구성된 남녀 대표팀도 새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 日 야구계 호시노 WBC 감독 진퇴 놓고 시끌

들 소식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는 일본에서 WBC 감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일본은 역대 최강의 선수들을 구성했다는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직후부터 차기 WBC 감독 문제로 시끌벅적한 모습을 보여 왔다. 논란은 WBC 아시아예선을 주최하는 요미우리의

와타나베 쓰네키 회장이 "호시노 이외의 인물이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일본야구기구(NPB) 주최로 WBC체제검토회의에서 현역 감독은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그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호시노에 대한 팬들의 반발을 등에 업은 메이저리거 스키치 이치로가 "현역 감독을 배제하는 것

은 진심으로 강한 팀을 만들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WBC 감독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 야구계의 중심에 떠올랐다.

결국 여론에 부담을 느낀 호시노 감독이 22일 NPB 사무국에 감독직을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일본의 감독 선임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본에서는 호시노를 대체할 감독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하라 다쓰노리 감독과 라쿠엔 골든어글스의 노무라 가쓰야 감독, 주니치 드래곤스의 오치아이 히로미쓰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야구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일본에서 포스트시즌 중에도 내년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감독 선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23일 도쿄지역의 일본 스포츠전문지들은 대부분 1면 머릿기사로 베이징올림픽에서 일본을 이겼던 호시노 센이치가 WBC 감독직을 고사한 사실을 전했다.

전날 세이부 라이온즈가 퍼시픽리그 클라이맥스 시리즈 제2스태이지 6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시리즈 진출을 확정했고 일본내 최고 인기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포스트시즌 첫 경기를 치렀지만 이